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

The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of Korean Urban Housewiv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과정 이지은

박사과정 백은영

Dept.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Student : Ji Eun Lee

Doctoral Student : Eun Young, Baek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선택성 소비지출과 관련변수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of Korean urban housewives an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535 housewives living in Seoul and Gyungki district were selected and frequencies, percentile,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nthly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of Korean urban housewives was 592,500won. Particularly, the level of clothing expenditure for urban housewives of 135,700won was found to be the highest expenditure among other discretionary expenditures, while the level of transportation expenditure of 68,100won was found to be the lowest expenditure. Second,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status, conspicuous tendency of consumption, and contribution to household economic of urban housewives, husband's job, the number of children, monthly income, debt ownership and home ownership were significant variables on each category of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while age, future economic expectation, region and total asset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Third, employment status, conspicuous

tendency of consumption, husband's job, the number of children, monthly income and debt ownership were related to discretionary consumption expenditure of Korean urban housewives.

I. 문제제기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계소득도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가계의 소득증대는 가계의 소비지출을 양적으로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소비지출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정은주, 1993). 가계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욕구보다 사회적, 안정적 욕구충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가계의 소비지출에 있어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의 기초적 소비지출보다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인 교육비, 교양·오락비, 피복비, 개인 교통비 등 같은 선택성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이성민, 1992).

선택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부의 취업증가에 따른 가계 소득수준의 상승은 선택성 소비지출의 중요한 한 요인일 수 있다. 주부의 취업은 가계의 지출구조에 영향을 미쳐 비취업가계의 지출구조와 차이를 보이며, 취업여부는 가계 소비지출에 있어서 거시적, 미시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즉, 취업으로 인한 가계 총소득의 증가로 전체적 소비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며, 의복비, 교통비, 가사노동 대체비용 등과 같은 취업비용을 야기시킴으로서 소비지출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성을 갖는다(이기춘·민현선, 1992). 이러한 미시적 변화와 함께 주부의 취업은 가계의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증가를 가져와 인간의 행동양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증대된 소득으로 풍요를 누리는 인구비율이 확대되어 선택성 소비지출의 동향은 거시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Katona, 1975; 정은주, 1993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택성소비지출의 구조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

비지출함수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계수요를 분석하거나 실제 비목별 지출액과 지출 비중 등의 중단적 분석을 통해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을 파악하는 거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강이주, 1988; 김미향, 1988; 양세정, 1991), 선택성 소비지출 비목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기혼 여성 취업의 선택적 소비지출이나 취업주부의 소비지출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정은주, 1993; 박영미, 1996).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전체가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부의 취업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경제성장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나는 선택성 소비지출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가정경영의 주체이고, 또한 가정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부의 소비지출은 주부 자신뿐 아니라 가족원의 소비지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을 파악하고 이러한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며,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액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부 개인과 가계의 재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택성 소비지출과 관련변수

1. 선택성 소비지출의 특성

선택성 소비지출은 기초생계비 이외의 지출로서, 소비자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나타내면서 소비생활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지출이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그 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에 의해 그 범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풍요를 누리는 인구의 범위가 확대되면, 가계의 소비율과 저축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선택성 소비지출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소득이 증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회가 증가되어,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재(necessary goods)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선택재(discretionary goods)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고 내구소비재에 대한 몰입과 애착으로 선택성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강이주, 1988; Katona, 1975).

소비자의 자유재량적 선택이 가능한 선택성 소비지출은 필수재의 소비지출과 달리, 주어진 시점에서 억지로 지출하지 않으며, 습관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중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즉, 자동차와 대형 가사용품 등과 같은 선택재는 수명년한이 되기 전에 교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체시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휴가와 같은 선택재의 경우는 그 시기나 목적지가 습관적이지만 성격과 체류기간 등에 대한 선택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선택성 소비지출은 비록 계획기간이 짧지만 생각이 떠오른 시점에서 실제 구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박영미, 1996).

한편 선택성 소비지출은 기초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재(1차재)와 개인의 취향 및 가치를 반영하는 사치재(4차재)의 중간적 특성을 갖는다. 즉, 주택개조비, 자동차 관리비, 음주비 등과 같이 소득탄력성 부근에 있으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비지출이 증가되는 2차재와 자동차구매, 외

식, 일반가구, 오락 등과 같이 일정지출수준까지 소비지출의 열망이 커서 지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증가가 둔화되는 3차재의 범주에 있으며 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비지출의 특성이 있다(Douglas, 1980; 이성민, 1992에서 재인용).

선택성 소비지출은 소비지출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크게 인구 통계적 특성, 사회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및 재정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인구 통계적 특성

우선 선택성 소비지출과 연령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의복비 지출을 많이 한다(김영숙·왕인숙, 1989; 장운희·이은영, 1993; Dardis, Derrick, Lehfeld, 1981; Norum, 1989). 특히 가족생활주기는 총소비지출액, 비목별 소비지출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김기욱·이승신, 1990), 가족생활주기 후기단계에 있는 가계일수록 자동차관련 지출이 더 많게 나타난다(Foster, 1988; 박영미, 1996에서 재인용). 또 주부의 학력이 가계소비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총소비지출, 식료품비와 기타 소비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김영숙, 1990), 의복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Zhang & Norton, 1995). 이처럼 교육수준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이 가정의 기대소득과 가족원의 선호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수준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래소득을 기대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되므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와 선택성 소비지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취업주부가계가 비취업주부 가계에 비해 외식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연구결과들(Dardis, Derrick, Lehfeld, 1981; Bellante & Foster, 1984; Foster, 1988)이 있는 반면에 외식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도 있다(Redman, 1980; Geobel & Hennon, 1982). 한편 소득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주

부의 취업은 가계의 의복비지출(Hager & Bryant, 1977; Vickery, 1979; Norum, 1989)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개인교통비(Vickery, 1979; Foster, 1988; 정은주, 1993에서 재인용)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도시가계의 선택성 소비지출에 있어서는 주부의 취업이 피복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연구(이성민, 1992)와 이와 상반된 결과로 주부의 취업이 피복비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도 있다(박상학·김경일, 1992). 또한 주부의 취업여부는 교양·오락비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이성민, 1992), 외식비와 잡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학·김경일, 1992). 이밖에도 양세정(1997)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가계보다 취업주부가계가 식비, 외식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공공교통비, 이·미용비, 장신구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3. 사회 심리적 요인

선택성 소비지출은 과소비성향, 가정 경제적 기여감, 미래 가정경제 예견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과소비성향은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려는 성향(백경미·이기춘, 1995)이며, 과소비적 소비성향은 과소비를 초래하여 지출비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예는 한국 도시 근로자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에 대해 연구한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의 연구결과에서, 과소비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식품비, 외식비, 피복비, 교제비, 공공교통비, 경조비, 기타비에 대한 지출이 더 많고, 특히 개인교통비와 같이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지출비목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문숙재·김혜연(1995)의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이 가정소득에 대한 취업주부의 소득비율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부의 가정경제 기여감은 선택성 개인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

전망과 소비지출 패턴에 대한 김기욱·이승신(199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하는 소비자가 식품, 피복·신발, 교양 오락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가족관련 요인

선택성 소비지출은 남편의 직업, 자녀수와 거주지역과 같은 가족관련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남편의 직업이 노동적인 경우보다 사무직인 경우에 의복비를 많이 지출하였음을 보고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김영숙·왕인숙, 1989, 장윤희·이은영, 1993, Dardis, Derrick, Lehfeld, 1981, Norum, 1989), Zhang과 Norton(1995)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의복비 지출이 많다고 하였다. 또 류재술(1992)의 연구에서는 교육과 교양·오락 같은 이차적 소비지출비율이 남편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노무자가구가 낮은 지출을 보였는데, 이는 노무자가구가 봉급자가구보다 저소득층이면서 불안정한 고용기회를 갖기 때문에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oster, Abdel-Ghany와 Ferguson(1981)은 가족원수와 자녀교육비의 정적 관계를 밝혔으며(정은주, 1993에서 재인용), 가계 소비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최은숙(1986)의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이 비슷한 가족간에는 가족수가 소비유형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수는 소득다음으로 소비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식품비, 피복비, 주거비, 교통비의 변동이 가족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 김기욱과 이승신(1990)의 연구에서도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가족수가 총소비지출액, 비목별 소비지출액, 비목별 지출 백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비목은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교양 오락비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Zhang과 Norton(1995)은 의복비에 대한 가계의 지출패턴을 연구한 결과에서 자녀수에 따라 의복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성민(1992)의 도시가계의 선택성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외식비, 교양·오락비, 개인 교통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5. 재정관련 요인

선택성 소비지출은 월 평균 소득액, 총자산액, 부채유무와 주택소유여부 등과 같은 재정관련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김기옥과 이승산(1990)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 중 소득이 총소비지출액, 비목별 소비지출액, 비목별 지출 백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세정(1998)의 연구에서는 고소득 주부가계의 소비지출 규모가 저소득 및 중소득 주부가계에 비해 외식비와 개인 교통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선택성 소비지출비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또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의복비 지출을 많이 하였고(김영숙·왕인숙, 1989; 장윤희·이은영, 1993; Dardis, Derrick, Lehfled, 1981; Norum, 1989), 소득원천에 따른 가계의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는 다른 소득원천보다 주부 근로소득에서 의복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Hager & Bryant, 1977; Vickery, 1979; 박영미, 1996 재인용). 심영(1993)은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연평균 소비 지출액의 소비지출 비율을 보면, 소비자 부채부담이 많을수록 식비, 개인비의 연평균 소비지출 비율은 낮았고, 기타교통, 외식비, 피복비, 자동차에 대한 연평균 소비 지출 비율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Foster, Abdel-Ghany와 Ferguson(1981)은 가계총소득과 유동자산, 주택소유형태 등이 취미·오락, 휴가, 자녀교육, 가전제품, 기타내구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른 변수들보다 가계총소득이 자녀교육, 휴가, 취미·오락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이러한 지출비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정은주, 1993에서 재인용). Zhang과 Norton(1995)은 소득과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의복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할수록 의복비 지출이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관련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자녀수, 거주지역, 월 평균 소득액, 총자산액, 부채유무, 주택소유여부, 과소비성향, 가정경제 기여감 및 미래 가정경제에 대한 예견 등이 선택성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액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도시주부의 지출 비목별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선택성 개인지출은 의복비, 외식비, 교통비, 사교비 그리고 앞의 비목들을 제외한 지출인 기타지출을 지출비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출비목을 합한 총지출액을 선택성 개인지출총액으로 하였다. 또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부의 인구 통계적 특성, 사회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및 재정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주부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의 변수를 고려하였고, 사회 심리적 요인에서는 주부의 과소비성향, 가정경제 기여감 및 미래 가정경제에 대한 예견을 포함하였다.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남편의 직업, 자녀수, 거주지역을, 재정관련 요인으로는 월 평균 소득액, 총자산액, 부채유무 및 주택소유여부를 선정하였다.

사회 심리적 요인 중에서 주부의 과소비성향은 타인지향성, 유행추구, 유명상표선호, 고가품 지향성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절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Type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다. 또한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은 가계의 경제수준향상, 가족원의 의식주 소비생활의 해결, 가정의 자산증식, 자녀교육비, 목돈지출에 대한 대비,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기여(IMF로 인한 소득감소, 실직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선택성 개인지출비목	의복비=의복, 액세서리, 신발 등의 구입비(만원/월) 의식비(만원/월) 교통비(만원/월) 사교비=사교비, 부조금, 용돈(만원/월) 기타지출=의복비, 의식비, 교통비, 사교비 등을 제외한 지출액(만원/월)
선택성 개인지출총액	의복비+의식비+교통비+사교비+기타지출(만원/월)
인구 통계적 특성	
주부의 연령	1=20대(<30) 2=30대(30≤ <40) 3=40대이상(40≤)
주부의 교육수준	1=고졸이하 0=대졸이상
주부의 취업여부	1=취업 0=비취업
사회 심리적 요인	
과시소비성향	타인지향성+유행추구성+유명상표선호+고가품선호 1. 절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정말 그렇다
가정경제 기여감	가계의 경제수준향상+소비생활해결+자산증식+자녀교육기여 +목돈지출+경제환경변화대응+여유자금마련+노후대책 1. 전혀 기여못함 2. 거의 기여못함 3. 보통 4. 약간 기여함 5. 많은 기여를 함
미래 가정경제 예견	1. 매우 낮아질 전망 2. 약간 낮아질 전망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높아질 전망 5. 매우 높아질 전망
가족관련 요인	
남편의 직업	1. 전문직·관리직 2. 사무직 3. 기타(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무직, 은퇴, 학생)
자녀수	동거하는 자녀수(명)
거주지역	1=서울 0=기타지역(경인지역)
재정관련 요인	
주택소유여부	1=자가 0=임대
월 평균 소득액	가계 총소득액(만원/월)
총자산액	금융자산액+실물자산액(만원)
부채여부	총부채액(만원)=금융기관부채+비금융기관부채+개인사채 1=(총부채액>0) 0=(총부채액=0)

등), 가정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유자금마련, 노후 대책 등과 같은 8문항을 측정하였으며, '전혀 기여하고 못하고 있다'의 1점부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의 5점까지의 5점 Likert Type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에 대해 더 많이 기여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가정경제에 대한 예견은 앞으로 5년 후 가정경제의 생활 수준에 대한 전망을 묻는 1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 1점,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의 5점까지 부여하는 5점 Likert Type 척도

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앞으로 가정경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예견하는 긍정적 전망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중 과시소비성향과 가정경제 기여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간 내적 일치도 방법을 통해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주부의 과시소비성향 척도는 $\alpha = .857$, 가정경제 기여감 척도는 $\alpha = .849$ 로 나타났다. 연구문제를 위해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주부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라 유의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도시주부 100명을 조사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설문지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회부된 600부 중 부실 기재

를 제외한 535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6.12)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도시주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및 재정관련 요인의 일반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또한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대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선형관계를 설명하는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도시주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주부의 연령층은 40대 이상이 44.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7.2%, 20대가 17.9%의 순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35)							
범주변수		빈도	%	범주변수		빈도	%
주부연령	20대	96	17.9	남편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212	39.6
	30대	199	37.2		사무직	221	41.3
	40대 이상	236	44.1		기타	102	19.1
주부교육수준	고졸이하	285	53.3	거주지역	서울	326	61.0
	대졸이상	250	46.7		경기도지역	208	39.0
주부취업여부	비취업	254	47.5	주택소유여부	자가	342	63.9
	취업	281	52.5		임대	193	36.1
				부채유무	유	245	45.8
					무	290	54.2
연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자녀수(명)		1.55	0.99	과시소비성향(1-5점)		2.35	0.63
연령(세)		38.21	8.05	가정경제 기여감(1-5점)		3.36	0.69
월평균 소득액(만원)		291.52	174.91	미래 가정경제 예견(1-5점)		3.33	0.94
총자산액(만원)		24617.00	37051.00				

었으며 평균연령은 38.21세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53.3%가 고졸이하였으며, 52.5%가 취업하고 있었고, 47.5%는 전업주부였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41.3%, 전문직·관리직이 39.6%, 기타(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무직, 은퇴 학생) 19.1%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61.0%였고, 주택을 소유한 주부는 63.9%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54.2%는 가계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거하는 평균 자녀수는 1.5명, 가계의 월 평균 소득액은 월 2915,000원이었으며 총자산액은 평균 246,170,000원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과소비성향은 중간점수인 3점보다 낮은 2.35점으로 나타나 과소비성향이 약간 낮았으며,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은 3.36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아 긍정적인 기여감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 가정경제에 대한 예견은 3.33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아 미래 가정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②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 지출액 수준

조사 대상자의 선택성 개인지출을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액을 비목별로 보면, 의복비는 118,000원, 외식비는 60,700원, 교통비는 55,500원, 사교비는 98,800원, 그리고 기타지출액은 31,400원이었으며, 의복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기타 지출이 가장 적었다.

또한 이러한 지출비목을 모두 합한 선택성 개인지출 총액은 364,3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주부 가계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인 2,427,000원의 15.0%

를 차지했으며, 월평균 총소득액인 2,915,000원의 12.5%를 차지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도시주부의 지출비목별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회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및 재정관련 요인이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주부 자신의 의복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취업여부, 과소비성향, 월 평균 소득액 및 부채여부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취업을 하거나, 가계의 월 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주부의 과소비성향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 때 의복비의 지출이 많았다. 특히 월 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의복비지출이 증가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의복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많은 연구(김영숙·왕인숙, 1989; 장윤희·이은영, 1993; 배미경·박광희, 1997; Hager & Bryant, 1977; Dardis, Derrick, Lehfled, 1981; Norum, 1989; Zhang & Norton, 1995)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부 개인의 외식비 지출에 있어서 주부의 교육수준과 과소비성향, 남편의 직업, 자녀수, 월 평균 소득액 및 부채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주부보다는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주부, 과소비성향이 높은 주부,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인 경우가 기타인 경우보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월 평균 소득액이 많을수록, 부채가 없을 때 더 많은 외식비를 지출하였다. 특히 남편의 직업이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무직, 은퇴, 학생인 경우보다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주부의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이상의 주부가 일반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고졸이하의 주부보다 사회적 활동영역이 넓으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다른 직업들보다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아 외식비를 지출할 기회가 많

<표 3>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액

	(만원/월)		
선택성 개인지출 비목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의복(액세서리, 신발 등)	11.80	6	13.17
외식비	6.07	5	6.62
교통비	5.55	3	6.30
사교비(용돈 등)	9.88	10	9.72
기타지출	3.14	0	7.55
선택성 개인지출총액	36.43	28	30.02

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자녀수가 적을수록 주부의 선택성 개인외식비가 많게 나타난 부적 관계는 자녀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외식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거 자녀수가 총수입에 대한 외식비 소비 지출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김영숙(1990)의 연구, 자녀의 유무와 자녀의 나이가 외식비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Nayga(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부 자신의 교통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과시소비성향, 그리고 월 평균 소득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취업주부, 주부의 과시소비성향이 클수록, 월 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교통비지출이 많았다. 주부가 취업한 경우 전업주부보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가 많고, 또 과시소비성향이 큰 주부나 월 평균 소득액이 많은 가계의 주부는 일반 대중 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교통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주부취업과 공공교통비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특히 고소득주부의 개인교통비

〈표 4〉 지출비목별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35)

설명변수	종속변수		의복비		외식비		교통비		사교비		기타지출	
	B	β	B	β	B	β	B	β	B	β		
주부연령(40대이상)												
20대	0.41	0.01	1.12	0.06	-0.32	-0.02	2.28	0.08	-1.50	-0.06		
30대	-0.49	-0.02	1.08	0.08	0.79	0.05	1.90	0.09	-0.50	-0.03		
주부교육수준(대졸이상)	1.27	0.04	1.23	0.09*	1.17	0.08	0.82	0.04	-0.09	-0.00		
주부취업여부(취업)	3.89	0.13**	0.90	0.07	2.75	0.18***	1.26	0.06	1.51	0.08		
과시소비성향	2.81	0.11*	0.99	0.09*	1.30	0.11*	-0.41	-0.03	-0.01	-0.00		
가정경제 기여감	-1.26	-0.06	-0.19	-0.02	-0.55	-0.05	0.29	0.02	-2.00	-0.15**		
미래 가정경제 예견	-0.95	-0.06	0.17	0.02	-0.47	-0.06	-0.35	-0.03	-0.15	-0.02		
남편의 직업(기타)												
전문·관리직	3.71	0.12	1.90	0.14*	1.19	0.08	1.46	0.07	1.42	0.08		
사무직	0.75	0.02	0.81	0.06	0.42	0.03	-0.84	-0.04	1.62	0.09		
자녀수	-1.07	-0.07	-0.79	-0.12*	-0.52	-0.07	-0.68	-0.07	-0.86	-0.09		
거주지역(서울)	0.15	0.00	0.52	0.04	-0.09	-0.01	0.05	0.00	0.14	0.01		
월 평균 소득액	0.03	0.33***	0.01	0.26**	0.01	0.28***	0.01	0.15**	0.01	0.15**		
총자산액	-0.00	-0.04	-0.00	-0.00	-0.00	-0.02	-0.00	-0.03	-0.00	-0.03		
부채여부(유)	-3.00	-0.10*	-2.39	-0.18***	-0.27	-0.02	-3.07	-0.15***	1.15	0.06		
주택소유여부(자가)	0.18	0.01	0.76	0.05	0.89	0.06	1.32	0.06	2.22	0.12*		
상수	2.98		-0.52		0.10		7.79*		6.41			
R ²	0.20		0.23		0.20		0.09		0.07			
F-Value	7.66***		9.12***		7.81***		3.18***		2.49**			

*P<.05 **P<.01 ***P<.001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양세정(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부 자신의 사교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액과 부채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월 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주부 자신의 사교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주부가계가 각종 모임의 회비지출이 많았다는 양세정(1998)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 사교비 지출에 있어서 월 평균 소득액과 더불어 부채여부 변수의 영향력이 높았는데, 이는 사교비의 긴요도가 낮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사교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부 자신의 기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가정경제 기여감, 주택소유여부 및 월 평균 소득액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부가 가정경제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할수록 기타지출이 더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액이 많을수록 기타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경제 기여감 변수와 월 평균 소득액 변수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출비목별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변수별로 비교해 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은 외식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출비목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교육수준과 주부취업의 정적 관계에 기초하여 주부가 취업한 경우나 취업주부인 경우에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외식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의복비 지출과 교통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다른 지출비목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주부의 취업이 의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성민(199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보다 피복비 및 피복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지출한다는 양세정(1998)의 연구, 주부의 취업에 따라 의복비 지출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Zhang과 Norton(1995)의 연구, 자동차관련 개인교통비에 있어서 취업주부가계의 지출이 비취업주부가계에 비해 더 많았다는

Vickery(1979)의 연구와 Foster(1988)의 연구, 그리고 취업주부가계가 일반가계에 비해 피복비 및 교통통신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박상학과 김정일(1992)의 연구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전업주부보다 외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 지출액과 의복비, 교통비 지출이 많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부의 과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주부 자신을 위한 의복비, 외식비, 교통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과소비성향이 높을수록 고가품이나 사치품 선호로 인한 의복비의 증가, 잦은 외식으로 인한 외식비의 증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는 또한 과소비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외식비, 피복비,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경제 기여감은 주부 자신의 기타지출에만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타지출 항목이 의복비, 외식비, 교통비, 사교비와 달리 자주 지출하지 않는 비목, 즉 낭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은 주부 자신의 외식비 지출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남편의 직업과 주부의 직업이 정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주부가 직업이 있거나 전문직 및 관리직일 경우 외식비 지출이 많다는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또 남편의 직업이 다른 지출비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다른 지출비목이 남편의 직업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녀수는 주부 자신의 외식비 지출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외식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거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총수입에 대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다는 김영숙(199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자녀비용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주부의 개인적 외식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택소유여부는 주부의 기타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주택을 소유한 주부가 소유하지 않은 주

부보다 기타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소유여부가 가계의 소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Zhang과 Norton(199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가계 저축 동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구입이기 때문에 주택 구입 후 저축은 지출에 대한 여유자금이 되기 때문에 기타지출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월 평균 소득액은 주부 자신의 선택성 개인지출비목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각 지출지목에 대한 설명력도 가장 높았으며, 월 평균 소득액이 많을수록 주부의 개인지출비목 액들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을 하고도 금전적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며, 월 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주부지출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정은주(1993)의 연구, 사회경제적 특성 중 가계소득이 모든 비목의 지출을 높이는 유일한 변수임을 밝힌 김기옥과 이승신(1990)의 연구, 가계총수입에 따라 전 비목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김영숙(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채유무는 의복비, 외식비, 사교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부채는 신용카드구입이나 외상거래에 의한 부채가 아닌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 사채를 부채라 정의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의 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므로 이것은 월 평균 소득액이 높은 가계의 주부가 선택성 개인지출비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주부의 연령, 거주지역, 총 자산액, 미래 가정경제 예견 변수는 지출비목별 주부 자신의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회 심리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및 재정관련 요인이 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부 자신의 개인지출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취업여부, 과소비성향, 남편의 직업, 자녀수, 월 평균 소득액 및 부채여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월 평균 소득액이었고,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직업, 자녀수와 부채유무, 그리고 과소비성향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과소비성향이 높은 주부, 남편의 직업이 기타인 경우에 비해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자녀수가 적을수록, 월 평균 소득액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 때 개인지출총액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과소비성향이 높은 경우에 개인지출총액이 높은 것은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의복비, 외식비 및 교통비에 영향을 미치는 과소비성향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주부취업이 의복비나 교통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임금수준이 높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주부의 개인지출총액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비용의 증가로 개인지출총액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채가 없을 경우 부채부담이 없어 지출액의 여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부가 다양하게 선택성 지출 비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박상학·김경일, 1992; 이성민, 1992; 양세정, 1998; Vikery, 1979; Foster, 1988; Zhang & Norton, 1995)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주부의 선택성 소비지출에 있어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의 연구는 과소비성향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주부의 소비지출 비중이 달라짐을 밝힌 김영숙(1990), Nayga(1995)의 연구 결과와, 월 평균 소득액의 개인지출총액에 대한 영향은 월 평균 가계 소득에 따라 주부지출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정은주(1993)의 연구, 가계소득이 지출 전비목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김기옥과 이승신(1990), 김영숙(1990)의 연구결과, 부채와 소비 패턴을 연구한 심영(1993)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표 5〉 선택성 개인지출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535)

설명변수	선택성 개인지출총액	
	B	β
주부연령(40대이상)		
20대	2.00	0.02
30대	2.78	0.04
주부교육수준(대졸이상)	4.40	0.06
주부취업여부(취업)	10.30	0.15***
과시소비성향	4.68	0.09*
가정경제 기여감	-3.71	-0.08
미래 가정경제 예견	-1.75	-0.05
남편의 직업(기타)		
전문·관리직	9.67	0.14*
사무직	2.75	0.04
자녀수	-3.92	-0.11*
거주지역(서울)	0.78	0.01
주택소유여부(자가)	5.36	0.08
월 평균 소득액	0.07	0.35***
총자산액	-0.00	-0.05
부채여부(유)	-7.58	-0.11**
상수	16.75	
R ²	0.26	
F-Value	10.59***	

*P<.05 **P<.01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작성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주부의 월 평균 선택성 개인지출액을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복비는 118,000원, 외식비는 60,700원, 교통비는 55,500원, 사교비는 98,800원, 그

리고 기타지출액은 31,400원으로, 의복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기타 지출액이 가장 적었다. 또한 이러한 지출비목을 모두 합한 선택성 개인지출총액은 364,300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비목별로 살펴 본 결과, 도시주부 자신의 의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취업여부, 과시소비성향, 월 평균 소득액 및 부채여부였으며, 외식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과시소비성향, 남편의 직업, 자녀수, 월 평균 소득액 및 부채여부로 나타났다. 또 주부 자신의 교통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과시소비성향과 월 평균 소득액이었으며, 주부 자신의 사교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평균 소득액과 부채유무였다. 그리고 주부 자신의 기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가정경제 기여감, 주택소유여부 및 월 평균 소득액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요인을 변수별로 비교해 보면, 주부의 연령, 거주지역, 총 자산액, 미래 가정경제 예견변수는 지출비목별 주부 자신의 개인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취업여부, 과시소비성향, 남편의 직업, 자녀수, 월 평균 소득액 및 부채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월 평균 소득액이었고,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직업, 자녀수와 부채유무, 그리고 과시소비성향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주부의 월 평균 선택성 개인지출액을 지출비목별로 비교해 볼 때, 선택성 개인지출 중 많은 지출을 한 비목은 의복비와 사교비로서 일반적으로 가계의 파복비액을 고려해 볼 때 총지출액 중 주부 개인이 차지하는 의복비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주부의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의복비, 사교비 등의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주부를 위한 재무관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주부의 월 평균 선택성 개인지출에 주부의 취업여부와 과소비성향, 월 평균 소득액과 부채유무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도시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따라 선택성 개인지출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시취업주부와 도시 비취업주부의 선택성 개인지출액의 차이, 월 평균 소득액별 선택성 개인지출액의 차이, 부채유무에 따른 선택성 개인지출액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편 도시주부의 지출비목별 선택성 개인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던 변수 중 도시주부의 연령, 거주지역, 총 자산액, 미래 가정경제 예견 등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선택성 소비지출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출한 후에 증가하는 비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변수들의 직·간접 효과가 상쇄된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주부의 선택성 지출비목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물론, 가족원 개개인의 선택성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의 총소비지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계의 총소비지출과 가족원 개개인의 선택성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비교, 연령별 선택성 소비지출비목의 차이 등을 포함한 새로운 연구분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들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를 도시 주부 전체로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이 따른다.

【참 고 문 헌】

- 강이주(1988). 선택성 소비지출의 변동을 통한 지출 패턴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4), 113-127.
- 김기옥 ·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김미향(1988). 식료품 소비구조의 분석(1975-1985). *대한가정학회지* 26(1), 109-122.
- 김영숙 · 왕인숙(1989). 도시가계의 피복류 소비지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79, 21-39.
- 김영숙(1990). 한국 가정의 가계 소비유형 분석. *소비생활연구* 5, 31-40.
- 류재술(1992). 적응적 기대(AE)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장단기 소비합수추정(봉급자 가구와 노무자 가구의 비교연구: 1970-1990). *소비자학연구* 3(1), 80-95.
- 문숙재 ·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 박명희 · 이승신 · 배미경(1996). 한국 도시 근로자 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박상학 · 김경일(1992). 맞벌이가계의 소비지출행태와 주부취업에 대한 의식을 고찰한다. *국민가계경제연구소*.
- 박영미(1996). 서울시 취업주부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전문직 · 비전문직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경 · 박광희(1997).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7.
- 백경미 · 이기춘(1995).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이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12.
- _____ (1996).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85-99.
-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 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_____ (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65-182.
- _____ (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pp.169-186.
- 이기춘 · 민현선(1992). 도시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0(4), 107-120.
- 이성민(1992). 도시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행태에 관

- 한 연구-노동자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9, 53-60.
- 장윤희 · 이은영(1993). 소비자 자기실현 욕구와 의복 선택과의 상관연구. *서울대생활과학연구* 18, 85-94.
- 정은주(1993). 기혼여성 취업이 선택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1986).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llant, D. & Foster, A. 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2), 700-707.
- Dardis, R. & Derrick. F. & Lehfel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2.
- Foster, A. C.(1988).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5-27.
- Hager, C. J. & Bryant, W. K.(1977). Clothing expenditures of low income rural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1(2), 127-132.
- Katona, G.(1975). *Psychological Economics*. New York. Elsevier Scientific Publishing Company.
- Nayga, R. M. JR.(1995). Presence of children and household food expenditures at home and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cience and Home Economics* 19, 235-245.
- Norum, P. S.(1989). Economic analysis of quarterly household expenditures on appar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3), 228-239.
- Redman, B. 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 Vickery, C. (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Women at work*. (Ed.) Smith, R. E..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 Zhang, Z. & Norton, J. M.(1995). Family member's expenditures for clothing categori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 (3), 311-336.